



(...10페이지에 이어)는 에너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혹시 작은 키가 커리어에 제약이 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꽃잎' 오디션의 문구가 그거였어요. '소녀를 찾습니다. 작고 마른 소녀...' 제 키가 160cm가 넘었다면 이 세계에 들어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웃음)."

작은 몸이 뽀얀 '강'과 카리스마가 전도연을 담당했다고 했더니, 막대사탕을 베어 문 듯 감동적인 표정이 됐다.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많은 배우가 다 악바리 근성이 있어요."

"강"의 기질은 혹시 아버지에서 물려받았나요?

"(웃으며)아버지는 성실한 강령계 형사였어요. 등에 권총을 차고 다니셨고, 점심엔 동료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이셨어요. 보수적인 분이래 '혼날까봐' 저는 영화 오디션도 막내 언니랑 몰래 가서 봤어요. 그런데 합격 발표가 신문 1면에 나는 바람에 들켜서, 그날 아빠 앞에 무릎 꿇고 앉았죠. 아빠가, 절 보더니 단박에 그러셨어요."

"우리 딸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서울대 들어간 것"



▲ 한국판 '헝스런 마츠코의 일생'이라 불리는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그로테스크함과 사랑스러움을 동시에 보여준 '수남' 역할로 이정현은 2015년 청룡영화상에서 '암살'의 전지현, '차이타운' 김혜수, '무뢰한' 전도연을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보다 더 기쁘다!"

-자극심으로 속을 꼭 채워 주셨군요!

"맞아요. 그래도 저는 또 고생하는 거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가족들이 촬영장에 절대 못 오게 했어요. 미성년자였는데도 촬영장에 내내 혼자 있었어요. 미친년 분장해서 피 칠갑을 하고 돌아다니던 때라... 그런데 어느 날 몰래 구경 온 아빠 엄마와 딱 마주쳤어. 마지막 광주 금남로 군중 촬영 현장에서요. 어찌나 놀랐던지 엄마 아빠가 신문으로 얼굴을 막 가리시더라고요. 하하."

-박찬욱 감독의 '괴담' 촬영 때도, 문소리 대타로 전화 받고 현장에 달려가 2시간 만에 저수지에 빠진 시체 연기를 했습니다. 메이킹 필름을 보니, 거친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마음으로 행복했다고 해서 놀랐어요.

"문소리 언니가 임신하는 바람에 갑자기 섭외 전화를 받았어요. 현장 가서 대본을 봤는데, 무당 역할이네요. 다행히 제가 브레이크 댄스를 배웠어요. 관절이 잘 돌아가요. 물에서 끌려 나와 엎어치고 매쳐지며 끌려가는데 관절이 막 돌아간다고 감독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하늘에서 내려준 선녀라고. 모형 시체보다 더 시체 같다고요. 하하. 저는 그냥 그모든게 꿈같

▲ 요리할 때도 연기할 때도 끝까지 판다.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에 집중할 때 발견되는 '몰아'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정현.

고 감사했어요."

-연기하는 태도가 정말 헌신적이군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간절하게 진실하게 해요. 완전히 그 인물이 되어서, 감독의 의도가 관객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대는 달라도 제 안에 있는 밝은 리듬이 나와요. 즐겁죠. 두 개의 장르에서 다른 에너지가 나오는 게 신기해요."

-무대에서 테크노 춤을 추며 가수로 살 때는 즐거웠나요?

"(원치 않게)네! 그때는 또 모든 컨셉을 다 제 뜻대로 만들고 펼쳐냈어요. 1집 '와'에서는 동양적인 무대를 꾸미었어요. 그다음 '바꿔'에서는 여전사로, 2집에서는 이집트 컨셉, '줄레'에서는 바비 인형, 3집 '아리아리'에서는 야생녀 컨셉으로 갔어요."

제가 데뷔할 때는 세기말이라 다들 말레니엄을 노래했어요. 사이버 컨셉 일색이었는데, 전 오히려 반대로 갔죠. 아쟁 소리를 넣고, 비녀 꽂고 부채 들고, 과격하 테크노 쿼

기 춤을 했어요. 작은 비녀는 안 보인다고 30cm나 길게 뽑아서 꽂았어요. 부채 안에는 눈동자를 그려 넣었는데, 동공이 지구였어요. 저의 구상은 동양적인 외계인이 지구를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놀랍네요! 무엇보다 신인 가수인데 컨셉을 만드는 능력과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음반사 회장님이 첫 방송 나가고 "니가 한 이상한 화장에 눈동자 부채 때문에 다 망했다!"고 탄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거리 레코드점에서, 리어카에서 CD 사려고 길게 줄을 늘어섰어요. 그 뒤부터 컨셉은 모두 제 맘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정현을 '조선의 레이디'가라고 하지만, 무대마다 독특한 스타일과 과격적인 퍼포먼스를 먼저 선보인 건 레이디가가보다 먼저였죠.

"시기적으로는 제가 앞섰죠(웃음). 레이디가가의 인어 컨셉도 제가 '바꿔'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였던 적이 있어요. 소고기 드레싱도 인형에 고기 옷을 붙인 한 아티스트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저도 써먹어야지 했는데, 레이디가가가 입고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레이디가가는 아트 팀이 있었고, 저는 공공대며 혼자 했다는 거예요(웃음)."

-자기만의 끼와 힘으로 한 시기의 음악 산업을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진정한 '강'의 원조가 아닌가 합니다(웃음).

"매번 방송국 미술감독을 쫓아다니며 이런 세트들 만들어 달라고 조르곤 했어요. 제 별명이 공포의 스케치북이었어요. 재미있으니 기를 쓰고 했지요."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죠?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하자! 저는 설거지를 해도 음식물 망을 끝까지 다 비워요. 화장실 청소를 해도 배수구 머리카락 한 올까지 잡아내죠. 연기할 때도 능력의 최대치를 쓰려고 해요. 일단 시작했으니 끝까지 잘 마무리하려고 해요."

-'노력의 배신'을 느낀 적은 없나요?

"애초에 자신 없는 건 잘 안해요(웃음). 가령 스트레칭은 해도 기술을 쓰는 스포츠는 안해요. 노력해도 안 될 뎀 저도 원망이 왜 안 들겠어요. 하지만 작은 기회라도 오면, 그때 되게 감사하며 해요. 나중에 후회하면 괴로우니까."

-슬럼프가 올 때는 어떻게 극복했지요?

"항상 잘 되던 그다음에 슬럼프였어요. 영화 '꽃잎'을 찍고 나서 바로 슬럼프였는데, 가수로 1집 내고 나니 또 슬럼프...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일은, 잘 되든 안 되든 슬럼프가 자주 와요. 피가 마르죠. 이겨내기 위해 저는 취미를 찾았어요. 취미가 있으면 힘든 시간을 견딜 힘이 생겨요. 그게 제겐 요리였어요."

주말엔 남편과 원예농장에 가서 천 원짜리 모종을 사요. 베란다 텃밭에서 상추와 블루베리를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요. 어릴 때 엄마는 텃밭에 고추, 파, 배추... 온갖 채소를 다 심었어요. 끼니 때면 언니랑 바구니 들고 채소 뜯으러 갔는데, 저는 그 심부름이 너무 좋아서 매번 텃밭 노래를 불렀어요."

커서는 매주 목요일 TV 앞에서 7시 45분을 기다렸어요. '한국인의 밥상'을 보려고요. 엄마랑 둘이 앉아서 가마솥 뚜껑 위에 지글지글 소리 내며 부침개가 익어간다면 세상 시름이 다 잊혔어요."

-슬플 때는 언제인가요? 기쁠 때는 언제인가요?

"슬플 때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아프실 때죠. 기쁠 때는 엄마가 당수치도 혈압도 정상이라 기분이 좋으실 때고요. 잠시나마 함께 나들이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그리고 엄마한테 배운 레시피로 오이소박이며 김치며 유튜브에 소개한 걸 보고, 사람들이 '쉽게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할 때요. 엄마의 요리법이 퍼져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걸 보는 엄마가 웃으시니, 저

도 참 좋아요."

-월 새 없이 몸을 움직이죠?

"많이 움직이는데 그보다 더 많이 자요(웃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가요? 줄 때 행복한가요?

"줄 때 행복해요. 엄마가 주위에 바라는 거 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고 컸어요. 그 복이 제게 왔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꾸 주고 싶어요. 뻔한 말 같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기쁘거든요."

대화의 길목마다 유년이라는 기쁨의 저장고에 두레박을 내렸고, 그럴 때마다 평화의 온기가 찰랑거리며 줄을 타고 올라왔다. 엄마와 텃밭에서 풀을 뜯어 양푼에 비벼 먹던 풍경은 두고두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간직하고 싶다고 했다. 더불어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맹렬한 좀비와 들개 같은 인간들이 함께 살던 '반도' 촬영장도.

"배우도 스태프도 제 각자 불만 없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완벽한 상태를 경험했죠."

필요하면 순식간에 자기를 비워내는 '계산 없는 몰입'. 역설적으로 그로 인해 폭발적인 존재감이 드러나는 방식에서 집안 일과 영화 일은 닮았다. 마치 나라는 존재는 타인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는 듯. 비워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비울수록 기쁨으로 채워지는 엄마의 밥상처럼.

헤어지는 순간까지 당부를 잊지 않았다.

"기운 빠질 땐 된장찌개를 끓여 드세요. 육수 진하게 내서 된장 풀고 양파 한 개 반, 대파 한 개만 썰어 넣고 끓여도 정말 맛있어요. 순식간에 행복해져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지치지 않는 힘과 투명한 연약함을 동시에 지닌 우리들의 슬기로운 여전사, 이 땅의 모든 성실한 앨리스에게 축배를!



# 가 자 여 행 사

에어 캐나다, 대한항공 한국행 세일 !!!

## 에어 캐나다 세일

## 대한항공 세일

### 대/한/항/공

비행기에 관한 모든 것 크리스틴 / TEL 403-454-8717, 403-455-1004 E-MAIL: gajatravel@gmail.com

**캐나다 동북투어 및 미 동북투어 상품**

- 캐나다 동부 (Best) 4박 5일 : 매주 일, 월, 목요일 출발
-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8박 9일 : 매주 수요일 출발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6박 7일 : 매주 목요일 출발
- PEI & 대서양 일주 8박 9일 : 매주 금요일 출발  
PEI & 대서양 일주 6박 7일 : 매주 토요일 출발

**미서부 투어 상품**

-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4박 5일 : 매주 수, 목, 금 출발
- 그랜드 캐년 3박 4일 : 매주 월요일 출발
- 서부 4박 5일 (3대캐년) : 매주 일, 월요일 출발
- 서부 대륙 6박 7일 : 매주 월, 금요일 출발
- 서부 대륙 7박 8일 : 매주 일, 월, 금요일 출발
- 엘로스트 3박 4일, 첫출발 5월 13일, 매주 월, 금요일 출발

**유럽 투어 상품**

- 파노라마 서유럽 11박 12일 (BEST 상품)
- 핵시 서유럽 6박 7일
- 이태리 일주 7박 8일
- 동유럽, 발칸 유럽 12박 13일
- 동유럽 7박 8일
- 발칸 일주 11박 12일
-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박 12일
- 터키 그리스 10박 11일
- 성지 순례 9박 10일 (이스라엘, 요르단)

"유럽 투어 출발일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